

## 전남, 5가구 중 2가구 빛 있다 28.6% 월소득 100만원 이하

### '2018 전남 사회지표'

출생아 수 1년 새 12% 급감  
 학생 수는 38% '곤두박질'

지난해 말 전남 출생아 수는 1만2354명으로 1년 사이 11.6%나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1.33명으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올해 출생아 수는 더 떨어진 것으로 잠정 집계돼 전남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남지역 5가구 중 2가구 꼴로 빛이 있고, 규모는 이 중 35%가 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 가구가 28.6%에 달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 65%가 100만원 이하여서 노인 일자리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18 전남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사회지표는 도민 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경제적 수준, 정책적 요구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다.

사회지표에 따르면 전남 출생아 수는 2017년 1만2354명으로, 2016년 대비 11.6%(1626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기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5년 1.55명에서 2016년 1.47명, 2017년 1.33명으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매년 감소하는 신생아 수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10명 중 3명(29.5%)은 '결혼지원금을 지급해 결혼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자녀 가족에게 주·교육

### ■인구 지표



비·세제 등 지원(17.9%), 다자녀 혜택 2자녀로 확대(16.9%) 등도 바꿨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편 33.1세, 아내 29.7세로, 지속적으로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1인 가구는 23만2022명으로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13.1%로 1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이어 목포(12.1%), 순천(11.8%), 나주(6.9%), 광양(6.2%)로 시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노후 부양은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 51.8%로 2년 전보다 5.2%포인트 증가했다.

전남은 5가구 중 2가구에서 빛이 있고, 이 중 34.8%는 부채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마련 자금이 4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3999만원으로, 전년보다 124만원(3%) 줄었다.

전남지역 학생 수는 곤두박질했다. 지난해 36만6072명에서 올해 22만496명으로 37.7% 급감했다. 전년보다 학생 3명 중 1명이 줄어든 셈이다. 유치원 원아 수는 1만9670명으로, 2만명선이 무너졌다.

개선이 필요한 교육환경으로는 학교시설 개

선(24.5%), 교육프로그램 확대(20.5%), 교육인프라 확충(17.3%) 등을 꼽았다.

의료서비스에 대해 도민 57.8%가 만족하다고 응답했다. 불만족은 9.8%였다. 불만족 이유는 치료결과 미흡(16.7%), 진료·입원 대기(15.2%), 전문인력 부족(13.5%) 등을 들었다.

도민의 현 거주지 평균 거주기간은 평균 30.5년이고, 주거환경 만족도는 자연환경과 쾌적함(52%)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전남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은 48.5%로 3년 연속 증가했으며, '전남'하면 떠오르는 대표 이미지는 '음식', 관광지는 '여수'로 답했다.

이번 사회조사는 올해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도내 22개 시군 1만9152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족·가구·소득·소비·교육·보건·의료 등 12개 분야 40개 문항을 조사원이 직접 면접 설문조사했으며, 도민 3만2828명이 응답했다.

2011년부터 매년 공표된 부문별 세부 사회지표는 전남도청 홈페이지(www.jeonnam.go.kr 분야별정보) 통계정보> 전남도 사회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문화전당 구상권 청구 않기로 ... 오늘 국무회의서 결정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5·18 단체들에 대한 문화전당 건설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본보 12월20일자 1면〉

23일 국무총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문화전당 간접 공사비 손해배상 청구 소 부제기' 안건을 보고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안건을 보고 받고 추진할 예정이다. 6박 8일 일정의 알제리-튀니지-모로

코 3개국 공식방문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 23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낙연 총리는 이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5·18 단체들이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요구하며 2008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공사현장을 점거·농성하는 과정에서 공기 지연으로 건설사 측에 물려준 110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국

가 공권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배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총리는 지난 16일부터 아프리카 북서부를 통칭하는 '마그레브'(아랍어로 해가 지는 곳) 지역 3개국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에서 총리회담과 비즈니스포럼, 동포·지상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23일 귀국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한전공대 부지' 광주·전남 또 갈등



한전공대 부지 선정이 임박하면서 광주·전남 기초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은 한국전력 본사가 있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지자체, 적극 유치 나서  
 전남·나주시, 과열 경쟁 우려

한전공대 부지 선정을 놓고 광주와 전남 기초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자칫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 등은 애초 한국전력이 위치한 나주혁신도시 인근에 한전공대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광주 일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광주시는 23일 "서구·남구·북구(장성군 포함)·광산구 등 4개 자치구가 제시한 부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마쳤고, 24일 추천 부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은 5개 자치구 중 동구를 제외한 서구·남구·북구·광산구 등 4개 자치구가 광주시에 부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현장 답사까지 마친 상태다. 서구는 매월동 일대를, 남구는 대촌동 도시첨단지구 인근 부지를, 북구는 첨단 3지구를, 광산구는 삼도동 옛 전남도 축산시험장 부지를 각각 한전공대 부지로 제안했다. 북구는 '북구 첨단 3지구'가 광주와 인접한 장성군에 걸쳐 있다는 점과 인근에 연구기관이 집적된 점을 강조하며 유치 경쟁에 뛰어 들었다.

반면, 전남도는 '어차피 한전공대는 전남'이라는 입장으로,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해 물밑에서 부지 물색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나주시와 나주시의회는 광주지역 기초지자체의 노골적인 입지 제안으로 후보지가 노출되는 점을 비판하며 광주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 지자체 간 과열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한전공대 유치전에 대한 시의회와 나주시의 입장을 밝혔다. 이재남 나주시의원은 대표 발언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던 한전공대 설립 작업이 최근 광주시 4개 자치구(남·서·북·광산구)에서 공대 부지 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명을 노출해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유치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나주시의 경우 부작용을 우려해 공대 입지 제안 후보지를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반면, 광주 자치구들은 노골적으로 구체적인 지명을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일보**  
 2018 국내 10대 뉴스  
 1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속 ▶18면  
 아시안컵 사상 나선 벤투 감독  
 "우리 스타일 유지하며 상대 존중" ▶20면



유담이 여러분께 드린  
 취리 기리는 '행복'입니다.

MK 매일경제 | 제 14회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  
 유담 유틸레스 트윈시티

ChosunMedia | 2019 CFAA  
**미래건축문화대상**  
 유담 유틸레스 트윈시티, 유담 마라나 호텔&리조트

## 고객님의 성원에 힘입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유담의 믿음과 자부심 위에 겸손함으로  
 행복을 위한 건설문화를 선도해 가겠습니다.

**유담**